

관계 메타포에 의한 정체성과 반응윤리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효의 의미—

류한근(성산호대학원대학교)

I. 서론

삶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연계망이다. 이 연계망의 일부가 비록 단순하게 파악될지라도 그 구성요소들과 연관된 것들을 들여다보면 다시 무수한 연계망이 드러난다. 내가 선택한 어느 하나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선택은 무수한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예측되기 어렵다. 영향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영향이 크기도 혹은 작기도 하다. 따라서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예측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반응들의 조합이 어우러져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될 경우이다.

하나의 패턴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선호와 혐오, 두려움과 기피, 당당함과 과민함, 애착과 집착 등 행위자의 다양한 정보를, 그리고 행위자의 삶의 역사와 환경, 의지와 성취의 정도, 미래를 기다리는 자세 등 해석자의 인식의 경계를 넓혀줄 성찰의 자원을 패턴에서 찾을 수 있다. 패턴은 반응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반응을 발생할 수 있다.

지속된 행동양식은 행위자의 신념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신념은 행동을 유지시키고 행동은 신념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강한 연결고리로 인해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옳음(rightness)과 좋음(goodness)은 행위준칙의 준거가 되지만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연쇄는 옳음과 좋음을 초월한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존중과 무시가 빈발한다. 삶의 전체성, 관계의 정체성은 이와 같은 모순된 현실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역동적 존재이다. 가족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적절한 반응이다. 내가 하는 반응이 과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인지 혹은 나의 반응으로 인해 상대의 반응이 적절하게 되돌아오는지 성찰해볼 필요를 제공하는 곳이 가족이며 특히 부모자녀관계이다. 이 관계는 바람직한 연속적 반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함께 성취할 가치를 공유한다.

히버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적 세계관은 인격 상호간의 깊은 관계와 공동체의 우선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관계성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본질임을 주장한다.(Hiebert, 2008; 544)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몫은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의 유비성은 가족관계, 가족공동체에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족관계의 정체성 즉, 아버지 호칭을 차용하신다. 그리고 차용을 넘어 아버지 존재를 새롭게 보여주신다. 인간은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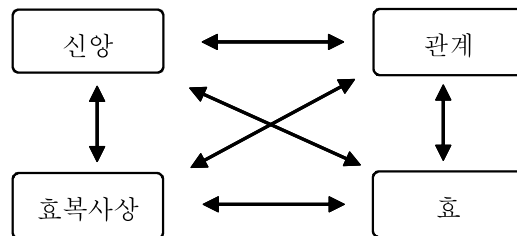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패턴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삼으시고 예수를 통해 아버지로 불리우시며 예수를 통해 인간과 화해의 역사를 만드신다. 아버지됨과 아들됨에 대한 기독교의 표준을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Smail, 2005: 72) 또 다른 측면은 '부모공경' 이른바 효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효를 통해 복을 약속하는 효복사상은 성부에 의해 계시되고 성자를 통해 설득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신뢰와 대화, 동반적 변화와 정체성을 드러내신다.

우주를 창조(Creator)하고 죄인을 구속(Redeemer)하시며 세상을 주관(Governor)하시는 이 거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인간이 취할 것은 자녀로 반응하는 것이다. 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로 반응

하는 효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통합하고¹⁾ 자녀는 부모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부모와 연관된 인격자로서 성숙해진다. 이러한 자녀 반응 패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해석하는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이 패턴 해석과정은 신앙을 인간관계에 비추고, 인간관계를 통해 신앙을 성숙하는 상호검증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효복사상은 거시적 행동으로, 효는 미시적 동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효는 반응윤리의 미시적이고 복잡한 작동체계임을 밝히고, 아버지의 정체성을 사용하여 효를 설득하는 성경의 거대이야기를 통해 자녀로서 반응하는 삶이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임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성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시스템적 관점(systemic perspective)을 취한다. 체계(system)는 대상들간의 그리고 그 속성들간의 관계성을 가진 대상들의 집합(set)이며 부분의 특성들로 환원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통합된 전체이다.(Hall and Fagen, 1968: 81) 상호작용의 그물망 속에서 구성요소들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남에 관심있는 시스템적 접근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반응이 아닌 지속적 흐름의 반응에 주목하게 하여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현재적 위치를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개념들의 상호작용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효복사상을 통한 상호검증체계

II. 반응윤리로서 효와 반응의 적합성

환경이 행동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 스키너(B. F. Skinner)는 비록 긍정적 강화가 일어날지라도 그 환경에 의해 조작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²⁾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는 자율적 자아라는 이상적 인간관을 낳았지만 그런 자유는 매우 통제된 자유라고 스키너는 말한다. 자율적 자아는 통제 자체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한다. 그의 지적처럼 문제는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의존관계 성질을 바꾸는 것이다. 자율적 자아는 선택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무관심하기 쉽다. 이 무관심으로 인해 선택 자체가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들인다. 선택의 상황이 있기까지 누군가의 노고가 있었다는 점과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도 수반한다는 공동체적 사고는 관계 속에서 반응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스키너에 따르면 어떤 조건들이 어떤 행동의 반응확률을 높이고 동시에 그 반응이 느껴지는 상태를 만든다.(Skinner, 1994: 47) 반응을 느끼는 민감성을 위해 환경을 읽어내는 능력, 그 속에서 형성된 행동들이 어떤 반응 패턴을 가지고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는지 보는 거시적 판독 능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나의 행동은

1) 부모자녀통합(parents child integration, PCI)을 부모공경의 대체 개념으로 보며 효를 개념화 한다. 박철호 (2010), 『효학의 이론과 실천』(과주: 한국학술정보), 133.
 2) 자유를 옹호하는 자가 겪게 되는 문제는 정적 강화로 만들어진 행동이 뒤늦게 혐오적 결과를 수반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보상에 의한 강화가 의도적 통제를 위해 쓰일 때 일어난다. 진정한 강화물도 사용방법에 따라 혐오적 결과를 낼 수 있다. B. F. Skinner (1971), *Beyond Freedom and Dignity*, 차재호 역(1994),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서울: 탐구당, 43-44.

무엇에 대한 반응인지, 그리고 나의 반응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능력이다.

샌델에 의하면 ‘상호간의 빚진 자’인 개인은 권리보다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Sandel, 2010: 189) 상호간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니버는 반응(reponse)은 응답(answer)이자 책임(responsibility)이라고 한다. 의무가 당위성이라면 책임은 현상과 선택 이후에 대한 부담(負擔) 즉 연속된 재반응이다.

효에 주목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는 무수한 선택과 반응을 지속하고 있는데, 효는 나름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되 자녀의 의지가 깊게 개입된 실천윤리라는 점 그리고 책임 개념과 연관된 반응체계이기 때문이다. 먼저 효의 속성들을 살펴보고 효의 책임성에 대해 니버의 견해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1. 효의 속성들

반응이 중요한 것은 자극 자체의 성질보다 반응의 양태가 더 의미있기 때문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분류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 여러 반응체가 동일한 반응을 하기도 하며 혹은 상이하고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가 생물학적 본능의 반응이라면 후자는 인식작용이 개입된 반응이다. 감각적 반응이 대체로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인식적 반응은 자극이 반응체의 이성과 감정, 의지와 결합하여 새롭게 구성되어 인식망에 포착되므로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응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매우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의 반응들은 매우 익숙한 상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친숙하므로 몸에 깊이 체화된 몸의 언어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응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연관성 있는 반응의 연속은 의미 덩어리를 생성하는 것이다.

반응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반응이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응을 하는 행위자는 자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반응의 패턴이 변하면 상대의 반응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반응은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등 관심 갖는 대상에게 의도한 바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는 대상의 속성에 관여하게 된다. 속성에 관여하는 과정은 적응의 과정이며, 관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가 적응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응의 패턴은 그밖의 다른 관계의 반응 패턴에도 유사성을 제공한다.³⁾

부모자녀관계는 여타 인간관계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첫째 장기간 지속되는 관계이다. 그 기간이 길면서도 서로에 대해 상세히 아는 친밀성이 있다. 둘째, 관계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관계성의 변화 즉, 애정의 정도, 의존도와 독립성, 유대감은 변할 수 있다. 정체성의 변화는 없지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많은 경험을 한다. 자녀가 성장하며 겪는 부모의 경험,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녀의 사회성, 애정과 원망, 갈등과 화해, 두려움과 위로 등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우기도 하며 가치관, 습관, 문제해결원리를 학습한다. 역설적이게도 자녀는 이 관계에서 닮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학습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행위 패턴은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행위 패턴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이다. 즉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에게 자녀로서 하는 반응하는 패턴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효라고 할 수 있다. 효는 유교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가치이며 가족문화의 근간을 이룬 도덕적 가치이다. 하지만 농경문화를 지나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이룬 지금 가족의 가치, 효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은 여전히 유효한 사회구성 기본단위이며 부모자녀관계는 사회구성원을 충원하는 유일한 관계이다.

부모에게 반응하는 자녀의 이상적 패턴을 효라고 할 때, 효의 속성을 몇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다.(류한

3) 부모자녀관계, 동료관계, 이성관계, 업무관계 등 선택과 혐오의 감정, 이성작용은 유사한 선택을 하는 데에 작용한다.

근, 2010: 237-59) 첫째, 효는 여러 가치들의 복합체이다. 효라고 개념화되지만 효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로 분화된다. 순종, 공경, 헌신, 배려, 책임, 소통, 정의, 존중 등 다양한 가치와 덕목들이 부모자녀관계에서 융합되어 효라고 인식된다.

둘째, 효는 삶의 과정이자 삶 자체 즉 일상생활이다. 행위로서 효는 특정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필요하고 적절한 가치를 발생하는 것이다. 효가 일상생활이므로 생활 속에서 쉽게 검증(test)된다.

셋째, 평생지속되는 관계에서 행해지므로 삶 전체를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효를 받는 객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효는 30대에서 50대의 부모보다 60대에서 90대의 노령의 부모에게 더 필요하다. 효는 모든 자녀가 하는 것이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특히 30대에서 50대의 성인자녀가 효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위, 경제력, 물리력이 최고조에 있는 성인자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 경제력, 물리력이 약하고 소외되는 노년의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다. 효교육은 성인자녀의 시기에 효가 발휘될 수 있도록 어린 자녀시기부터 준비시키는 학습이다. 성인자녀는 청소년기 자녀보다 효실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훨씬 많으며,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관계능력들이 요구된다.

넷째, 효의 대상은 부모이다. 부모는 낳고 길러주신 분이다. 이 점에서 부모는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사회적 존재도 된다. 낳지도 길러주지도 않으며 특정시점에 관계되는 부모 즉 배우자의 부모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부모가 된다. 그럼에도 효의 대상이 되며 이 관계, 소위 제1유형의 부모와 구분되는 제2유형의 부모는 성인이 된 어느 순간 맺어지는 성격의 부모자녀관계이다. 제2유형 부모는 제2유형의 자녀를 맞이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녀삼기'이다. 부모는 새로운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부모 역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제2유형의 부모자녀가 중요한 이유는 이 관계의 성공이 3세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부관계, 그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조손관계는 모두 얽혀 있는 하나의 그물망과 같다.

다섯째, 효는 권위구조에서 발생한다. 자녀는 권위자인 부모에게 효를 한다. 안정적인 권위구조를 가진 가정에서 자녀의 효 의식은 쉽게 형성될 수 있다. 가장 안정적인 권위구조는 3세대이다. 1세대와 2세대가 서로 권위를 존중해줄 때 3세대 자녀는 부모와 조부모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존중하며, 부모 역시 자녀로부터 권위를 갖추게 된다. 이 구조의 좋은 점은, 위기와 갈등이 있는 경우 중재 가능한 제3자가 있다는 것이다. 부모자녀 갈등에서 조부모가 혹은 손자녀가 중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는 부모 역할을 분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관계에서 다양한 가치 운영 능력을 학습한다. 세대는 서로 돕는 존재이다.

권위구조에서 부모는 '존경받는 존재'라는 가치가 다음 세대에 전수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유산 가운데 하나는 나의 자녀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효는 가르쳐진다고보다 설득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여섯째, 효는 몸으로 경험하는 언어이다. 감각으로 느끼고 몸으로 표출한다. 부모의 필요를 자녀가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자녀의 표현이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자녀로부터 배운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보살피며 상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 부모는 자녀를 '나를 성숙하게 하는 존재'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잘 다듬어진 자녀의 표현은 부모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그리고 부모의 필요와 부족을 채운다. 따라서 효는 교육이자 문화이다.

일곱 번째, 효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극복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격으로 인해 헌신, 돌봄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면 자녀의 정체성은 사회학적 성격으로 인해 정의, 요구가 더 강하다. 가치관의 차이와 신념체계는 충돌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 경우 기본적 합의가 가능한 최소 공유점이 필요하다. 그것은 생명의 존중이며 존재 자체 즉 정체성의 존중이 요구된다. 효가 발생하는 전제는 인간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생겨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은 정체성과 연관된다.

여덟 번째, 효는 환경에 민감하다. 법,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은 효를 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역

으로 효는 이와 같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현재, 가까운 미래는 효가 더 필요해지는 환경이다. 늘어난 평균수명은 부모로서 생존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조부모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조부모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은 아니다. 조부모로서 자녀, 손자녀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가치와 권위를 확보하는 것은 정체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효를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고 보살펴드리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연관되고 요구된다. 효는 전생애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필자는 효를 '부모의 긍정적 변화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의 삶에 참여하려는 적극적 의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류한근, 2010: 253)

2. 옳음, 선 그리고 적합성

행위자의 행위는 선행 행위에 대한 반응이다. 반응이 반응을 만든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가 반응하는 패턴은 지속적 흐름을 형성한다. 이 관계는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모르면서 저지르고 후에 화해하는 것, 반드시 화해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덮어두는 것 등 부모이기 때문에 혹은 자녀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수많은 연속행위들의 복합체이다. 신뢰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이 신뢰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관계에 편입되며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해 간다. 이 관계는 어느 보편 법칙에 의해 유지되거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와는 다르다. 따라서 맥락에 대한 관찰과 이해가 중요하다.

맥락에 대한 민감성은 반응의 적절성을 강조하여, 이후 반응의 흐름을 통해 해석되어 적절성은 판단된다. 반응의 패턴을 파악하는 정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적절한 반응은 공동체 내에서 용납되고 장려된다. 적절한 반응 가운데 양립된 견해로 해석되는 것은 갈등과 논쟁의 과정을 겪는다. 반응은 당위성과 유용성 모두를 포괄한다.

좋은 것(the good)과 옳은 것(the right)을 추구하는 인간관을 상징하여 니버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인간(man-the-maker)'과 '시민으로서 인간(man-the-citizen)'으로 본다.(Niebuhr, 1983; 67-78). '만드는 인간'은 목적을 위해 행동하고 사물에 모습을 부여하는 인간상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을 가진 인간은 다양한 개별적 목적들을 하나의 공통된 사회적 목표로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른바 수단과 목적을 연결시키는 능력, 포용적 목적과 배타적 목적, 직접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을 분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목적론적 입장의 이들은 '나의 목표, 나의 이상, 나의 중국성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한다.

만드는 인간과 대비되는 '시민인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탐구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며 논리적 법칙이나 과학적 방법의 법칙에 따라 수행한다. 삶은 예술이라기보다 정치이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타당성 있는 온당한 법칙(rule of justice)에 따라야 하므로 온당성(justice) 자체가 목적이다. 그런데 공화국의 시민으로 입법적 자이는 다양성의 조화를 성취해야 하는 '사물을 관리하는 자어(administrative self)'이다. 의무론적 입장의 이들은 도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삶을 다스리는 법은 어떤 것인가? 내 삶의 제일 법칙은 무엇인가?'하는 물음을 한다. 올바른 삶(right life)은 미래의 이상이 아니고 현재적 요청인 것이다.

'만드는 사람'은 옳은 것이란 선한 것과 관련해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리적인 것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에 반해 선한 점을 옳은 것에 종속시키는 '시민인 인간'은 올바른 삶만이 선한 것이다. 하지만 두 인간상의 선택의 상황에서 실제적 갈등을 야기한다. '나는(혹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하는 물음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 사이의 실제적 연장이다. 여기서 니버는 '책임'을 대안으로 하는 '응답하는 인간(man-the-answerer)'이라는 상징을 제시한다. 이는 대화하는 인간이고 자기에게 과해진 행위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인간상이다.(Niebuhr, 1983: 80) 일상적 경험에서 보듯이 대화에 참여하고, 질문된 물음에 답하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명령에 응하고, 도전과 직면하는 일상의 삶속에서 ‘응답하는 인간’을 볼 수 있다. 아이리쉬의 지적처럼 니버의 응답성(responsiveness)은 복합적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파악함에 있어 합목적성(purposiveness)이나 의무(duty)보다 우위에 있다.(Irish, 2010: 28)

니버가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mean)은 적절한 응답(fitting response)이다. 그리고 감정에 종속되지 않고 이성으로 반응하려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해석하는 힘에 가깝다. 이런 견해로 니버의 책임윤리는 적합성(fitness)을 근간으로 한다. 책임은 추상적 규범이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요청이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문제해결이 요청되는 것은 고통의 문제에 직면한 경우이다. 고통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것에서 와서 삶의 부정해버리기도 하고 자아실현이나 가능성 있는 삶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니버가 지적하듯이, 고통은 목적론적 인간이 목적을 향하면서 단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론적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입법 영역에 의지에 무관하게 침투하는 것이다.(Niebuhr, 86) 고통을 마주한 인간의 행위는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법칙으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현실에 반응하여 요청과 물음에 응답하는 것이다.⁴⁾ 그의 책임윤리는 적합한 행위만이 하나의 응답과 그 응답 이후에 또 어떤 응답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응답의 총체에 적합한 행위가 선(good)하고 옳은(right) 것이다.⁵⁾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은 김태길의 언급한 바와 같이 진리 그 자체의 파악보다도 진리로서의 접근을 피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태길, 112) 노력의 과정은 반응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응에 기본개념을 둔 니버의 책임이론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Niebuhr, 88-98) 첫째 요소는 응답(response)이다. 우리에게 과해진 행위에 대한 응답이며 해석된 행위에 대한 응답이다. 입장을 달리하는 두 집단 간의 충돌은 상대방의 의중을 짐작하면서 해석하는 두 공동체 간의 충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집단 자체의 목적이 무엇이나보다 상대방의 목표에 대하여 각기 두 집단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해석이며, 책임은 단순한 응답행위가 아니라 대담해야만 하는 물음에 해석을 하여 응답하는 행위이다. 반응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해석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해석은 책임을 동반한다. 세 번째 요소는 책무(accountability)이며 책임은 해석된 행위에 반응할 때 뿐만 아니라 반응에 대한 예상된 반응을 염두하고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화는 자기 발언에 대해 반대, 수긍, 수정 등을 예상하며 진행한다. 나의 의도가 그것이 아닐지라도 내 말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되는 대화자에게는 책무가 부과된다. 네 번째 요소는 사회적 유대(social solidarity)이다. 사회는 서로 연결된 관계들로 상호작용한다. 올바른 해석은 이러한 연결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며, 개인적 책임이란 행위자의 소속 공동체가 자체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 유대에 민감한 행위자는 그 연결성에 의해 반응과 책임의 맥락적 범위와 전체적 차원을 염두 한다. 따라서 반응대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공동체임을 말한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반응은 응답이며 책임의 관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책임은 ‘나(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반응으로서 해석하고 책무를 지며 그 대상들을 결속하는 것이다. 책임의 관점은 옳음, 선함과는 달리 적절함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이 적절함은 과거와 현재의 해석, 미래의 예측에 관심을 둔다.

4) 니버는 이러한 물음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내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 이 아이의 삶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 하는 부모의 원초적 행위로 예를 들고 있다.(Niebuhr, 87)

5) 직각론(intuitionism)의 윤리학자인 로스(Ross)와 무어(Moore)는 옳음(rightness)을 일종의 관계로 본다. 프라이스(Price)는 의무(obligation)과 적합성(fitness)을 도덕적으로 쓰이는 경우 옳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김태길 102,173)

III. 관계 메타포와 하나님 ‘아버지’

맥락에 어울리는 것이 적절함이며 이것은 관계에서 파악된다. 행위자는 맥락과 패턴을 해석하여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한다. 그런데 선택해야 할 가운데 상충되는 의무가 충돌하여 근접하지 않은 해석이 발생할 경우 적절함을 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 관계의 재설정 자체가 요구된다. 이른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선택과 예수의 선택 사이 갈등이 의미하는 바는 선택을 바라보는 해석자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히버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적 세계관은 우주적 이야기와 인간 역사에 대한 견해를 그 중심으로 삼는다.(Hiebert, 570) 우주적 이야기는 인간을 포함하고 인간과 연관된 거대한 내러티브이다. 인간의 역사는 우주적 이야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다. 따라서 우주적 이야기와 인간의 역사 사이에 무엇이 전체이고 어디가 부분인지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연관된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1. 거대 내러티브: ‘아버지’를 해석하신 하나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의 역사라는 히버트의 지적처럼(Hiebert, 503)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독특한 관계맺음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인간의 관계맺음 방식 즉, 부모자녀관계를 차용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인간관계 가운데 상호작용의 빈도와 지속도가 매우 높은 관계일 것이며, 이에 익숙한 인간의 입장에서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메타포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택하셨다는 것이다.

예수 이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단 한 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급된다.⁶⁾ 스메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자연적인 생식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임을 보여준다고 한다.(Smail, 43)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맺은 부모자녀관계는 하나님이 부모의 신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성의 요소를 보여주신다는 점에 큰 이견은 없다. 부성과 모성을 모두 보여주신 하나님을 성(性)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는 없다. 부성을 남성성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모자녀관계의 속성상 더 나은 메타포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메타포를 스스로 취하셨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호칭은 예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성부의 정체성은 성자 예수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파격을 보였다.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예수가 보인 순종과 신뢰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모울(C. F. D. Moule)의 지적하듯이 예수의 ‘아빠’ 호칭은 허물없는 친숙함 그 이상의 것이다. 예수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 사용한 ‘아바’는 가장 깊고도 가장 신뢰하는 경외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Smail, 49)

예수의 순종은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는 법적 순종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신뢰의 반응이다.(Smail, 46) 성자 예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택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인간과 자녀관계를 맺으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함을 통해 인간은 전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인간의 자연적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6) 신명기 14: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

아버지되심으로 인간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스메일의 지적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예수와의 연합에서 취하신 사랑과 권위, 존재의 친밀한 유대를 의미한다.(Smail, 70)

인간 아버지의 경험적 사실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해석할 경우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고대 문헌을 통해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생물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비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아버지의 자격이 획득된다.(Miller, 1999; 14)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였지만 농경 사회의 노동력 집약이 가능해지며 부족국가와 왕권제를 통해 강력한 가부장으로 등장한다. 이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존재이며 가정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정체성이란 관계에서 자신에 대해 품고있는 의식이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자녀로 칭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밀러에 따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Miller, 55-70) 성경의 전통적 규범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성적인 정결함(레18:20:8-21), 방탕함을 멀리하도록 했으며(잠5: 7:6-27) 부부간의 정절을 요구(출20:14)했다. 이는 당시 이방 문화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결혼의 순결성은 부부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여러 장치들을 설계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의식과 교육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인들에게 무교절과 유월절 의식, 그리고 초태생의 대속, 할례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표시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속자이신 아버지(사63:16)이다.

이스라엘 가족에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존재이다(잠1:8, 23:22). 부모는 존경받는 존재이며 안식일을 지키기 앞서 부모자녀관계 회복(레19:3)이 우선시된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부모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밀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시 근동 지방에 이러한 부성의 문화가 없거나 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이스라엘의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엄격하고 명확했던 아버지 역할과는 달리 신약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결혼의 관계성이 강조되어 절제되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딤후 3:2-7)

니버가 볼 때 인간은 중요한 상(image), 은유, 비유 등의 도움을 받아 실제-자기자신의 실존의 실제성을 포함-를 파악하고 조형하는 존재이다.(Niebuhr, 224)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가족에 비유하는 은유는 인간에게 매우 친숙한 근본은유 즉 부모자녀관계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이들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다른 종족과 구분하신 설계에는 하나님이 주목한 가족문화가 있었고, 그 부모는 존경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모델의 해석과 반영이 담겨져 있다.

관계 속의 반응으로 볼 때 아버지 정체성을 취한 하나님은 인간이 자녀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다고 볼 수 있다. 그 아버지-아들의 온전한 모델을 보는 의미는, 성자가 성부께 한 순종적 희생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신 성부의 희생을 보는 것은 이 관계적 측면을 깊게 이해하게 한다.(Smail, 161)

성경적 효의 정점에 있는 예수는 존재 정체성에 대한 확신, 아버지로부터의 공급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와 소통의 방법 터득하여 자녀로서 보일 수 있는 이상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다. 이제 아버지 해석의 내러티브가 인간의 역사에 스며드는 주요 개념임을 살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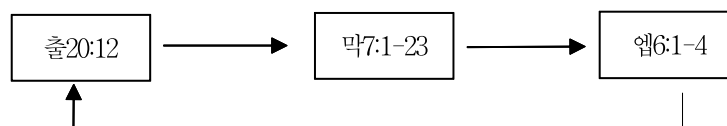
2. 세속의 역사에 개입: 효복사상

하나님이 인간과의 정체성에서 아버지를 택하셨다는 것은 ‘자녀들’의 역사에 관여하신다는 것이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히버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인간의 일상생활로 모셔온 것이다.(Hiebert, 447)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한국적 맥락에서 효로 이해될 수 있다. 효를 부모 공경이라는 주개념으

로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성경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주된 개념은 아니다. 그렇다면 효의 관점에서 부모공경 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효와 연관될 수 있는 다른 계명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가?

비록 효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시점에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수 이전과 예수 당시, 그리고 예수 이후 역사의 의미있는 전환기에 일관된 내용으로 언급된다. 그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부모공경 계명 해석의 순환성

먼저,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십계의 제오계명은 당시 인근 주변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제오계명의 특징은 명령과 더불어 따라붙는 ‘복의 약속’이다. 이런 성격의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구분된다.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의 성취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복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다.⁷⁾

예수가 언급한 부모공경의 맥락은 매우 심층적이다.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준칙인 장로들의 유전을 놓고 격한 논쟁을 한다. 장로들의 유전 즉 고르반이 부모공경의 제오계명을 약화시키고 덮어버리는 교묘한 수단이 됨을 예수는 지적한다. 예수가 볼 때 바리새인들은 부모의 필요에 귀기울이지 않고, 알면서 회피하는,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상황을 ‘신앙 좋음’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제일계명과 제오계명을 편의대로 해석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는 신앙 좋음에 의심을 던진 것이다. 박철호는 이를 예수의 균형주의라고 하여 율법화된 이기주의의 폐단을 지적했음으로 본다.(박철호, 2000; 103-7) 예수의 제오계명 해석은 신앙과 윤리적 삶의 균형인 것이다.

모세, 예수를 통해 언급된 같은 구절은 사도를 통해 다시 언급된다. 당대 가부장주의문화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유입되어 이질적인 상충을 겪으면서 교회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전략으로 바울은 부모공경계명을 언급한다.(박철호, 2000; 121) 그 내용은 모세를 통한 율법, 예수를 통한 친밀한 아버지상과 교육, 믿음을 통한 부모공경의 신념 그리고 복의 약속이다.(엡6:1-4)

모세, 예수, 사도들을 통해 전달되는 ‘부모공경’은 당시 처한 사회, 특히 이스라엘·기독교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통합할 수 있는 가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복의 주고받음 관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제오계명이 명령이면서 설득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복을 줄테니 효를 해보라는 강한 권유이다.

예수의 균형주의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효는 민감하고 매우 사적이라는 것이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은 본인만 안다. 예수는 그 부분에서 그것을 신앙과 견주라는 것이다. 부모에게 하던 그대로 특별히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것도 분명 효라고 할 수 있지만, 자녀는 그 이상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자기의 방식과 패턴을 던지고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일 것이다.(Hiebert, 565)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거룩함만으로 어렵다. 그런 삶은 자녀의 속성 즉, 유치함, 시기, 미숙함이 다 드러나고, 부모와 갈등하기도 하며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부모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는 성숙의 과정이기도 하다. 자녀로서 행동하는 바람직한 패턴의 하나로서 효, 이를 제시한 효복사상은 설득, 자녀삼음, 자녀와 함께 하는 아버지, 자녀로서 변화가 연결된 거대한 이야기이다. 효복은 하나님의 관계맺음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창조(만드시고

7)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복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박철호, 2003: 5-7)

기뻐하심)하신 자녀가 타락(자녀로서 적절하지 못함)하여 구속(자녀삼음)이 필요하여 행동을 취하시고 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녀삼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신뢰, 대화, 동반적 변화, 정체성이다. 니버에 따르면 신앙이란 나와 관계된 존재에 대한 신뢰이며 그 존재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다시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충성이라고 한다.(Niebuhr, 1960: 9) 하나님은 효복사상을 통해 먼저 신뢰의 관계를 만드시고,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반복하고 설득하신다. 그 신뢰는 예수를 희생하기까지 하며,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정체성을 먼저 취하신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들어선 인간은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정체성은 기독교인의 새로운 상징이 된다. 히버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 정체성의 심층에는 타자는 없고 우리가 있다고 하였는데(Hiebert, 547) 그 우리는 바로 ‘자녀들’이다.

기독교의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Hiebert, 556)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효를 반응의 차원에서 본다면, 효는 부모의 바람⁸⁾에 대하여 자녀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효복사상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에서 효를 하며 깊은 관계에서 얻어진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깨닫고 그런 자각과 정서를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하나님의 효와 복을 통한 설득을 보여주신 것이다.

IV. 반응체계의 해석

자녀에게 요구되는 규범이 만약 있다면, 인간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군가의 자녀라면 혹은 부모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이 규범은 모든 이들을 규제할 것이다. 그렇다면 효를 모든 자녀들을 규제하는 그런 규범으로 보아야 하는가? 만약 효가 그런 규범이라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효실천의 성취가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효는 흠이 적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효의 속성에서 그리고 효복사상을 통해 밝혔다. 효를 반응체계로 보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반응, 그리고 부모의 바람직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반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즉 효의 과정이 중요하다. 나의 반응이 옳을지라도 혹은 선할지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적합성을 찾아내기 위한 적극적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 효이다.

1.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판독과 표현

부모자녀관계는 친밀한 관계이다. 친밀하기 때문에 순간의 노출에도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억양의 변화,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까지 그 차이를 느끼고 서로 반응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이 반드시 깊은 관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구분능력이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잘 읽어낸다는 의미의 판독(reading and reasoning)은 순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흐름의 변화까지 입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자녀관계가 깊은 내밀한 단계에까지 들어서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쉽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모는 자신이 자라온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한다. 혹은 자신이 성장하며 성취하지 못하여 미흡한 것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신만의 방식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검증하지 못한

8) 부모가 갖는 자녀에 대한 바람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잘 살아라(관계적 측면. 사람·일의 관계, 소망의 성취 등) 2. 건강해라(신체와 마음의 조화. 관계 성공으로 얻어지는 긍정적 결과) 3.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라(삶의 완성도) 4. 다음 세대에 잘 전해 주거라(가치의 시간적 확장)

경우이다. 부모가 성장하며 형성된 반응 패턴으로 자녀를 대하며 자녀 역시 유사한 반응 패턴을 형성한다. 좋아함과 싫어함, 두려워함과 격동함, 기다림과 서두름, 즐김과 회피함, 정의로움과 편리함 등의 성향들, 상대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 설득과 용납의 대화 패턴, 갈등 이후의 대응양식 등 수많은 패턴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형성되거나 변화된다.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방어, 상대를 인정하지 못함, 얇은 관계에 익숙해서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심리는 부모자녀관계를 매우 형식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성, 자신을 객관하지 못하는 무관심과 두려움, 노력의 실패에 대한 신경증, 공유할 가치를 형성하지 못하는 대화 능력과 같은 복합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얇은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함께 살더라도 상대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가 성인이 되어 독립된 생활을 하기까지 기간은 불과 15년이 채 되지 않으며, 이 시기 경험한 부모자녀관계의 양과 질을 가지고 이후의 삶 약 40년의 평생 관계를 이끌어간다.⁹⁾ 부모자녀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보아오던 부모와 성인이 된 이후 겪게 되는 부모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 부모의 모습과 내면이 변하기도 하지만 부모를 보는 자녀의 관점, 경험, 지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만나는 부모자녀관계가 바로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남의 기회이다. 성인자녀에게 효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녀는 관독과 표현의 역량이 필요하다. 관독은 부모의 삶과 연관된 모든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현재 부모의 관심사, 삶의 만족도와 같은 가치관, 결혼시기·부모의 청소년기·부모의 출생 이전·조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역사 흐름, 부모의 소망과 성취 그리고 기대와 열등감 등의 내면세계, 타인과의 삶에 대한 기여 등의 외적 지향, 그리고 자녀를 위해 감내해온 수많은 선택과 포기 등이 자녀의 관독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텍스트의 확장은 그것이 내 시야에 들어오게 하는 관심과 함께 작동하며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효 의지이다. 효 의지에서 비롯된 이런 관독은 그것을 하는 자녀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주는데, 자녀로서 자신의 삶을 보며 해석하는 변화된 능력이며 이것이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다.

부모를 들여다보며 자신을 깊게 보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자녀에까지 관심 영역이 연결된다. 나의 가족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왜 지금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 자녀의 삶과 자녀의 이웃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평의 확장을 하면서 생략되거나 부족하거나 배제되었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들을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표현이다.

표현은 입, 체온과 피부, 손, 발의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여 말·글·결에 있기 등으로 나타나며, 마음을 나누기도 물질을 나누기도 한다. 표현은 흠어지고 조각난 가치들을 연결시킨다. 자녀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할 적절한 가치들을 찾아내어 부모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대화는 반응의 패턴을 새롭게 규정하고 변화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한 교감은 용서하고 화해하며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여 현재적 삶과 미래의 모습을 다르게 그릴 수 있다.

자녀는 관독하고 표현하며 부모가 살아온 삶 속에 감춰진 고통들을 포착하고 지평 위로 올려 놓는다. 성인된 자녀는 이러한 고통들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격적 만남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 인생의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키며 그 자녀는 이전의 자녀패턴을 극복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녀가 된다.

효는 부모의 삶에 참여하는 의지이며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긍정적 변화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의지가 구현되기 위해 효를 인식하는 인식의 땅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효라고 인식할

9)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자녀와 함께 생존하는 기간이 연장됨을 의미한다. 그만큼 평균수명이 짧은 시기는 효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 있다.

수 있는 자녀의 반응을 박철호는 순종, 친애, 존속, 대리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박철호, 2010, 156) 이것은 보편화 가능성의 효체계로서 앱6장1-4절을 근거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종의 효, 부모와 진리를 공유할 수 있는 친애의 효, 부모의 마음·영·신체의 건강을 유지해드리는 존속의 효, 부모를 종교적 혹은 자연법적 위임자로 인정해드리는 대리의 효로 구분하여 네 요소의 효가 상호작용하며 효의 인식망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효를 이와 같이 인식하는 것은 효가 어느 한 요소로 환원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개념의 도움을 받아 균형있게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로 다른 패턴의 효는 연령과 환경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상태와 패턴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2. 깊은 관계를 옮겨오기: 신뢰, 대화, 동반성숙, 정체성

효는 부모와 자녀가 깊은 관계로 맺어지는 좋은 방법이다. 그 실천적 방법으로써 판독과 표현이 활용될 수 앞에서 언급하였다. 판독과 표현을 통해 자녀로서의 삶을 극복할 수 있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과 분리된 삶이 아니며 또한 그 자녀의 삶과도 연계된다. 이 점에서 판독과 표현의 과정은 좀 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작용이 왕성한 구체화된 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효복사상에서 나타난 네 가지 성질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 삼으시며 효를 설득하는 효복사상은 설득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취하신 행위를 보여준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신뢰, 대화, 동반적 변화 그리고 정체성이다. 자녀삼기 위해 ‘아버지’로서 보이신 네 요소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응하는 행위이며, 자녀의 반응을 예측하고 취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에 자녀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신뢰하며, 대화에 참여하고 대화의 주제를 생성하고, 자녀로서 함께 변화하여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응체계는 자녀가 부모의 영역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판단과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부모가 원하는 기조와 합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내가 재구성해야 할 영역들이 있음을 뜻한다. 이른바 ‘내 방식대로’는 신뢰 형성에 약하다.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 합의된 목적을 향하기 위해 대화가 끊임없이 요구된다.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하며, 나의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지 혹은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화는 정해진 결론을 향할 수 있지만, 어떤 주제와 어떤 방향도 열려 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른바 적절성을 찾는 쉽지 않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부터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화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일 수도, 기대하지 않는 방향을 향할 수도 있다.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참여자들의 견해가 변하여 합의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가 지속되는 가능성이다. 동반적 변화는 이러한 견해이며, 그 참여자들이 인간 사회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동반성숙으로 표현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는 성숙해진 내 자녀를 발견하여 인정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존경스런 면모를 판독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 상대를 성숙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반응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신뢰를 강화한다. 이러한 변화의 진척 가운데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이다. 정체성의 확신은 관계 자체의 확신이다. 신뢰, 대화, 변화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지가 약화되지 않는 것은 정체성의 확신 때문이다. 자녀가 아무리 성숙하더라도 자녀이며, 부모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역시 성숙에 대한 보람에서 비롯한다.

‘자녀삼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신뢰, 대화, 동반적 변화, 정체성 개념으로 자녀와 깊은 관계를 취하셨다.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취할 수 있는 반응과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반응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3. 반응영역에 노출시킴으로 상호검증

니버는 책무에 관한 물음이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게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창조주와 연관된 대상들이 가족 밖의 존재들이라면 그들에게 역시 책무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삼음과 부모에 대한 효의 상호연결고리들 신뢰, 대화, 동반성숙, 정체성은 자녀로서 반응하는 패턴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효 개념이 만들어낸 상호연결고리들은 가족 밖의 대상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먼저 이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 상호검증이다. 이 개념으로 보면, 두 대상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에 만 잘 한다면 잘 한다는 것에 의심을 할 수 있으며 잘 하더라도 일부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상호검증은 '나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에서 균형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 사랑'(요일4:20)으로 검증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관계는 보이는 대상과의 관계로 검증하며 멀리 있는 대상은 가까이 있는 대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은 가장 미친한 자에게 하는 방식(마25:40)에서 검증된다. 이른바 검증을 위해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니버는 신앙구조에서 자아(self)와 동료들(companions)과 초월하시는 분(The Transcendent) 세 존재의 상호작용인 역동적인 삼자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 신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하였다.(임성빈, 1997: 30) 그런데 니버는 존재원인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 구속자, 주관자로 파악하여 반응해야 함을 주장하나, 자녀로서의 반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자녀로 반응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모로서의 관점과 자녀로서의 관점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효의 관점에서 본 자녀의 반응이다. 인간은 자녀이면서 부모를 경험하는 존재이다. 생애 과정에서 급격한 관계변화를 취하며 두 인생을 산다. 부모가 되고 난 뒤 자녀로 사는 삶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효의 패턴 가운데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방식대로'에 빠지는 경우이다. 부모에게 하는 효를 객관화하여 검증하는 방법은 없는가?

주관적일 수 있는 관계에서 매우 가깝고 친밀한 영역에 대어보고 바람직한 방식을 검증하는 것이 '가족화검증(familiarization test)'이다.(Ulrich, 1990: 52-75) 율리히는 가족화검증을 통해 시간의 영역과 공간의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의 방식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내가 하는 효가 혹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화검증은 유용하다.

니버가 말한 삼자적 관계를 유지할 경우,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공동체 내의 인격적 관계성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과 도덕적 행위자의 관계는 행위자와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유추하여 해석하고 반응하는 관계이다. 하나님에게 자녀로 반응하는 것은 성부와 자아의 관계로 인해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 '다른 자녀들'로 인격적 관계가 된다. 그리고 가족화검증 차원에서 친숙한 대상을 여러 대상(자녀들의 분화된 개념)으로 교차적으로 놓을 수 있다. 효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두 관점을 겹쳐 놓는다면, 친숙한 대상을 동료들 즉 자녀들로 인식하여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효의 불균형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성숙성을 가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자녀인 내가 효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대상을 부모, 공동체, 세대, 자연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얼굴과 몸을 보면 효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부모로서 존경받고, 부모의 마음과 몸이 건강한지, 부모의 바람을 자녀로서 원만히 조절하는지, 부모의 정체성에 흔들림은 없는지 관독을 통해 알 수 있다. 자녀는 존경과 보답, 배려와 정의, 책임과 소통, 보호와 존중의 가치들을 구현하고 조절하여 반응한다.(류한근, 2008; 323-352) 이러한 효는 의무로서 효를 넘어 신뢰를 구축하여 의지할만한 동반자 관계가 된다.

둘째, 제3의 존재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자녀는 부모 세대 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빚진 자이다. 공동체 혹은 이웃은 제2유형의 부모가 존재하는 대상이며 제2유형의 자녀도 그 가운데 있다. 이 대상은 공간적으로 확장된 자녀·부모이며, 이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 존경과 보답의 가치도 유효하지만 배려와 정의의 가치가 보다 더 적절하다. 내 자녀에게 권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정의로운 것이며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 배려이다. 이러한 정의와 배려는 들어주며 이야기하는 대화에

기초한다. 효를 하더라도 공동체와의 관계가 미흡하다면 대화능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배려와 정의가 약화된 효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또 다른 제3의 존재로서 세대(generations)가 될 수 있다. 부모는 나와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았다. 자녀는 공동체로부터 유익함을 얻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동반자가 된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좋은 가치는 다음 세대에 전승된다. 효복사상의 효는 다음 세대가 그 부모에 효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효가 부모에게 하는 반응이면서 아울러 대상으로서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효자로 길러내야 한다는 자녀세대에 대한 반응이다. 다음 세대를 염두하는 효는 소통과 책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녀세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절된다. 부모의 책임의식이 약하다면 굳이 설득의 필요를 갖지 못한다. 효 의지를 가진 성인자녀는 시간적으로 확장된 자녀에 반응하여 동반적 성숙을 지향할 수 있다.

넷째, 자녀로서 반응해야 할 대상으로 자연 영역이다.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이다. 자연은 효를 할 수 있는 환경조건도 되며 생명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영역이다. 생명은 보호받고 존중될 때 유지되며 그 존재 자체는 관계가 설정되면서 정체성을 갖게 된다. 나와 무관한 존재가 나와 관계가 형성되면 보호받을 대상이 된다. 정체성은 타자와 구별되면서 존중받을 때 드러난다. 바꿔 말해 구별의 경계가 흐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정체성에 위기가 온다. 자연 영역은 보호와 존중에 민감하다. 부모에게 효를 하면서 자연 영역에 반응이 미흡하다면, 가장 약한 존재에게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하는 효의 패턴이 될 수 있다. 이른바 강한 존재 대상에게만 발휘되는 효이며, 부모가 힘이 있다면 효를 잘 유지할 수 있으나 힘, 권위, 정당성이 약할 경우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자녀가 다른 대상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과 연관된다. 도덕 행위자인 자녀가 다른 대상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그 대상에 적절한 가치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효 개념과 어울리며 자원화된다. 자녀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반응이 효이다. 여러 존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것을 막는 것이다.

4. 효의 미래적 가치

효가 더욱 요구되는 환경들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년의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 생존하는 시간이 길어진 사회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의 건강함을 시험하는 테스트지와 같다. 건강한 가족은 유대감이 높으며 가족의 일원으로 정체성도 확고하고 진리를 공유한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할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복이다. 한 인간의 삶의 질은 마지막 20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생 후반 마지막 20년 동안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건강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 도움의 주체들 가운데 가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중 자녀가 될 수도 혹은 손자녀가 될 수도 있다. 노년에 느낄 수 있는 고독과 무가치함은 준비한 자만이 비껴갈 수 있다. 그 준비는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 시작되며 그것은 관계기술이다. 효는 부모자녀간의 독특한 관계맺음 방식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은 살만하며, 그 삶의 과정에서 아름다운 인격과 가치들을 만나고 누리며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바랍직한 유산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원들(resources)을 전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혜자는 부모이며, 성인자녀 자신이며, 그리고 자녀들이다.

V. 결론

하나님에게는 자녀로서 반응하며,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격은 자녀로서 참여하며 또 부모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임의로 처분될 수 없으며, 부모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다. 아버지로 불리기를 택하셔서 이른바 효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은 효 개념을 지닌 한국인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응은 성숙해지는 자녀로 반응하는 것이다.

효를 통해 사회에 반응하여 사회가 요청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결하는 시각을 갖는 것은 사회의 통합에 의미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그것은 효가 지닌 사회통합력으로 인해 가능할 것이며 그것을 구사하는 효를 하는 자녀들이 주체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길 (2005), 『윤리학』, 서울: 박영사.
- 류한근 (2008), “효실천의 연결망과 효의 가치발생체계”, 『성산논총』 제9집, 인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323-352.
- 류한근 (2010), “시스템 관점에서 본 효”, 『성산논총』 제11집, 인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37-259.
- 박철호 (2000), 『체계론에 의한 성경 연구』, 서울: 홍익재.
- 박철호 (2003), “기독교의 효복사상 분석”, 『성산학보』 통권 제9호, 인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03. 2. 5-7.
- 박철호 (2010), 『효학의 이론과 실천』, 과주: 한국학술정보.
- 박철호 (2012), 『기독교 효학의 이론과 실천』, 과주: 한국학술정보.
- 임성빈 (1997), “리처드 니버의 ‘응답의 윤리’”,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Hall, A. D. and R. E. Fagen, (1968) “Definition of System”, in Walter Buckley, ed., *Modern Systems Research for the Behavioral Scientist*, Chicago, IL: Aldine Publishing Co.
- Miller, John W. (1999), *Calling God “Father” Essays on the Bible, Fatherhood & Culture*, NY: Paulist Press.
- Niebuhr, H. Richard (1960), *Radical Monotheism and Western Culture*, New York: Harper & Brothers.
- Ulrich, Werner (1990), “Critical Systems Thinking and Ethics: The role of contemporary practical philosophy for developing and Ethics of Whole Systems”, *Toward a Just Society for Future Generations*, ISSS, Vol. I, Portland, Oregon, 52-75.
- Hiebert, Paul (2008), *Transforming Worldviews*, 홍병룡 역 (2010),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 사람.
- Irish, Jerry A. (1983), *The Religious Thought of H. Richard Niebuhr*, 박종균 역(2010), 『리처드 니버의 종교사상』, 서울: 장로교출판사.
- Niebuhr, H. Richard (1963),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Harper and Row, 정진홍 역(1983), 『책임적 자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Pearcey, Nancy R.(2004), *Total Truth*, 홍병룡 역 (2007), 『완전한 진리』, 서울: 복있는 사람.
- Sandel, Michael (2006), *Public Philosophy: 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Harvard Uni. Press, 안진환·이수경 역(2010), 『왜 도덕인가』, 서울: 한국경제신문.
- Skinner, B. F. (1971), *Beyond Freedom and Dignity*, 차재호 역(1994),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서울: 탐구당.
- Smail, Tom (1980), *The Forgotten Father*, 정옥배 역 (2005), 『잊혀진 아버지』, 서울: IVP.